

수능 최저 충족, 탐구의 영향력

수시는 흔히 수능의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생부 경쟁력이 뛰어나도, 면접을 잘 보았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합니다. 한데 이 최저 기준,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때문에 충족률도 차이 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시 데이터'에선 첫 번째로 최저 기준, 그중에서도 탐구 영역 반영 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표 1_ 2025 건국대·경희대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대학	인문				자연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충족률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충족률
건국대 (2개 영역 등급 합 5)	국어국문학과	5	127.6	53.2	물리학과	11	35.3	55.5
	중어중문학과	5	137	50.5	화학과	4	33.5	68.4
	경제학과	8	32.9	53.5	컴퓨터공학부	8	76.9	65.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	166	52.9	전기전자공학부	11	85	72.4
	국어국문학과	7	153.6	27	물리학과	7	51	30.8
경희대 (2개 영역 등급 합 5)	중어중문학과	4	52.3	23.4	화학과	6	54.5	38.5
	경제학과	7	65.6	26.8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9	42.3	37.3
	미디어학과	7	84.3	24.2	전자공학부 전자공학과	30	44.2	36.8

초보 위한 개념 정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대학이 수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 전공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업 수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용도.

'2개 영역 등급 합 5'란?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 줄여서 '2합 5'라고도 함.

✓ 최저 기준은 동일한데, 충족률은 차이 나는 이유는?

'표 1'은 <내일교육> 1215호 '준비 빠를수록 유리하다? 인문 논술 체코 포인트' 기사에 등장한 표입니다. 건국대와 경희대의 논술전형 최저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 5'로 동일하죠. 한데 충족률은 경희대가 낮습니다. 두 대학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비교하면 경희대가 약간 높은 편으로 알려졌죠. 이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왜 최저 충족률이 크게 차이 났을까요? 답은 탐구 영역 반영 방식에 있습니다. 2025학년 수시 논술전형을 기준으로 건국대는 탐구 영역 2과목 중 상위 1과목만, 경희대는 2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했어요(표 2).

✓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가 어떻게 충족률에 영향을 미칠까?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가 늘면 체감 난도가 높아집니다. 상위 1과목만 반영하면 한 과목에서 심하게 빼앗해도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충족이 가능하죠.

반면 2과목 평균을 반영할 경우 한 과목을 잘 봤어도, 다른 한 과목에서 낮은 성적을 받으면 평균치가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탐구 2과목 반영과 1과목 반영은 사실상 반영 영역 하나가 늘고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라고도 말해요. 수능은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2과목 평균 반영 대학의 충족률은 상위 1과목 반영 대학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걸음 더

✓ 최저 충족 위한 탐구 선택&학습 전략은?

수시전형에 주력하는 학생은 대체로 최저 기준 충족을 목표로 수능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희망 대학의 반영 영역에 맞춰 전략 과목을 추리고, 이들 과목의 학습에 집중하고요. 이때 탐구 영역에서 2과목 평균을 반영할 경우 수험생은 응시한 과목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특히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이 9개죠. 실제 수능에서 어떤 난도로 출제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변수가 많아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최저 기준을 자신하긴 어렵죠.

이런 특성은 수능 탐구 선택이나 학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응시자 수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학습 난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해 부담을 낮추는 수험생이 많죠. 자연 계열 모집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난도 높은 과목Ⅱ 대신 과목Ⅰ 2개에 응시하거나, 한 과목은 사탐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학습 시에는 초고난도 문항 해결보다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길 추천해요. 오답 분석을 통해 잘 틀리는 유형, 자주 하는 실수를 파악해 극복한다면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탐구 한 과목 차이로도 달라지는 충족률, 반영 영역 수에 따라 차이는 더 커지겠죠? 다음 편에서 최저 기준과 반영 영역 수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니, 기대 바랍니다! @

표 2_ 건국대·경희대 2025 논술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건국대		경희대	
계열/모집 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계열/모집 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인문/자연/ KU자유전공학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 외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수의예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		체육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모든 반영 영역에 응시해야 함 ※ 영역별 선택 과목 제한 없음 ※ 사/과탐: 2과목을 응시해 그중 높은 과목 반영		※ 모든 계열/모집 단위에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지정 과목) 없음(단, 한국사는 필수 응시) ※ 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되, 소수점 자리 버림 없이 그대로 반영함	

💡 흔히 대입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데 여전히 보통의 학부모나 학생에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어렵기만 하죠. 이에 <내일교육> 기사에 삽입되거나, 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쉽게 풀어드립니다. _ 편집자